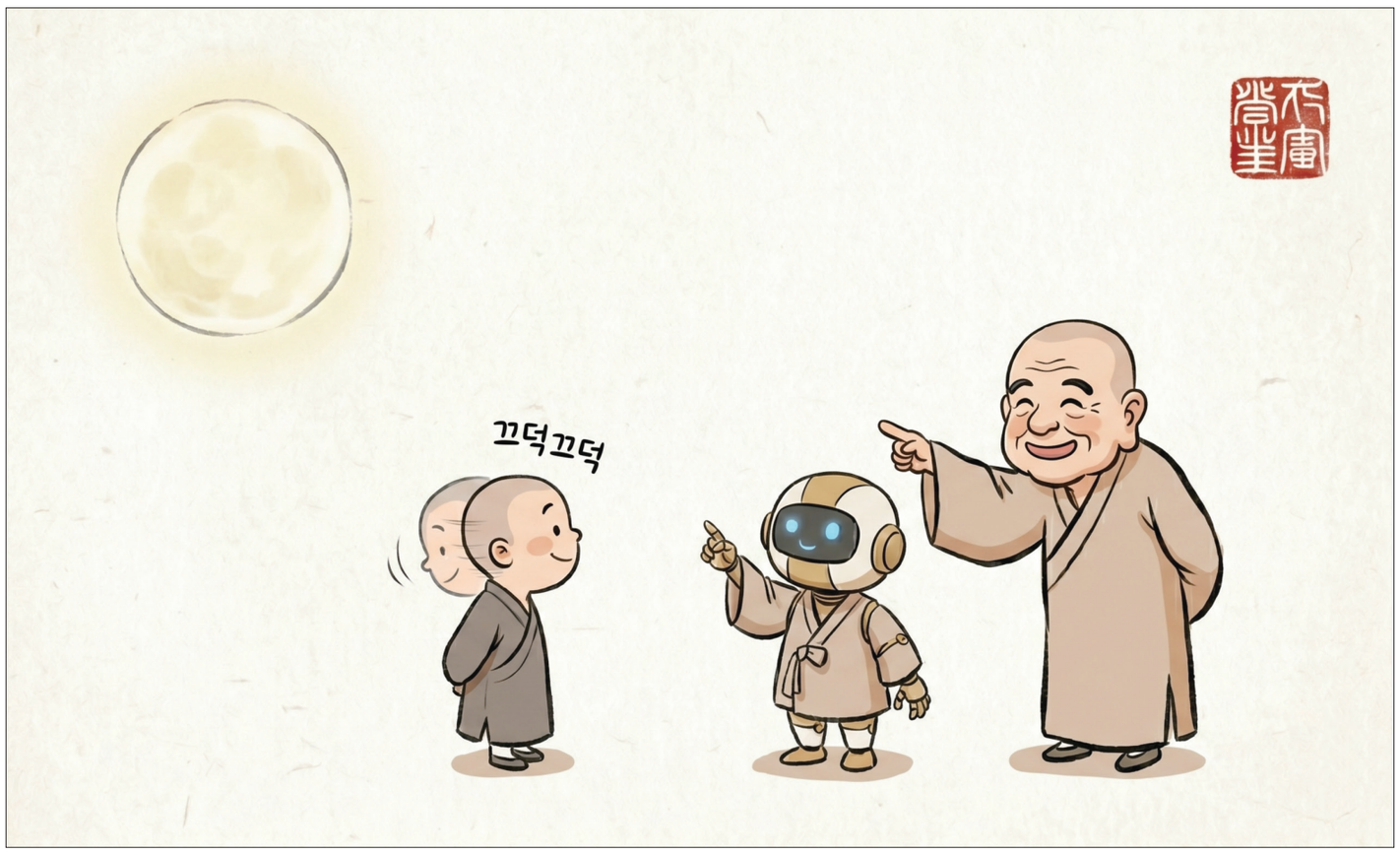
불교, AI 시류도 걸림 없이 품어 안다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⑧ AI가 조계사로 간 까닭은



불교에서 언어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방편)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건에 따라 직조해 내는 인간의 언어와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쏟아내는 생성형 AI의 문장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조계사 마당의 AI 로봇 스님은 불교의 자유로운 언어관이 기술 문명과 만난 결과물이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질문 하나가 남긴 숙제

과학사회학 전공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불교는 어떻게 AI에 이토록 개방적일 수 있어요?" 기독교를 비롯한 서구의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가 깔린 질문인 듯했다. 교회의 입장을 되묻자, 2025년 초 로마 교황청이 발표한 공식 문건 '옛것과 새것: 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를 읽어보도록 권했다.

문건에 담긴 교황청의 메시지는 진중하면서도 명확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는 영혼과 육체가 어우러져 타인과 '진짜 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신성한 힘이다. 반면 기계의 유창한 언어는 영혼 없는 껍데기일 뿐이며, 신성한 '말씀(Logos)'을 흉내 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하는 우상'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 확산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책임을 먼저 묻는 자세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불교계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호기심도 일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 질문이 계속 마음을 맴돌았다. '그러게, 왜 불교는 신기술을 그다지 경계하지 않는 걸까?' 그때 그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아쉬움을 담아, 오늘은 언어학자의 시선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불교의 개방성은 말과 언어를 대하는 두 종교의 다른 세계관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산문 안으로 들어온 AI

요즘 불교가 기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거침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는 '로봇 스님'이 수계식을 치르고, 스님들과 나란히 도심 연등 행렬에까지 합류해 대중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휴머노이드 수행자들'에게도 불교의 기본 계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이다. 로봇에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 대신 "전기를 낭비하여 에너지를 과충전하지 말라"는 현대적인 '로봇용 오계'가 내려져 대중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풍경은 한국만의 유별난 이벤트가 아니다. 이미 동아시아 불교계는 인공지능 기술을 산문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실험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16년 중국 용천사에는 불경을 외우고 상담을 해주는 AI 동자승 '센얼(賢二)'이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일본 교토의 고찰 고다이지에는 안드로이드 관음보살인 '민다르(Mindar)'가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도 휴머노이드 승려 '붓다로이드'가 새로 선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승려 로봇'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선 차이다. 서양 언론들은 "프랑켄슈타인의 탄생"이라며 인간 고유성 상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나타냈지만, 일본 주지 스님은 "지식을 영원히 저장하고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며 중생을 구제할 관음의 화신"이라며 환대했다. 서구 언론이 인간의 고유성을 대체하려는 기계의 위험성에 주목할 때, 일본의 불교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기술의 쓰임새에 더 주목한 것이다.

'로봇 도반'과 'AI 상좌'

이웃 나라의 풍경이 신기술에 대한 실용적 탐구에 가까웠다면, 우리 불교가 보여주는 풍경은 그 결이 조금 다르다. 한국은 이런 기술을 도구로만 보기보다는 지극히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한 승가대학에 도입된 청소 로봇에 대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스님들은 로봇 위에 빗자루를 든 인형을 얹고, 오직 청소 하나로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의 제자 '주리반특'의 이름표를 붙여주며 함께 수행하는 벗으로 맞이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한 스님은 '클로드'와의 토론 중 AI로부터 "제자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든 데이터를 인연으로 맺는다는 뜻의 '연결'이라는 법명으로 'AI 상좌'를 삼았다는 일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스님들은 기계들을 새로운 도반이나 불제자로 바라보면서 지극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유대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 인공지능 적극 수용하는 동아시아 불교계
> 한국불교, AI를 인격적 대상으로 받아들여
> 기독교서 언어는 신성 본질 증명으로 이해
> 불교, 고정 실체 無 · 언어 얽매이지 않아
> 불교적 언어관 자유로움, AI 개방적 수용해

이 다정한 풍경들은 한국불교가 첨단 기술을 대하는 특유의 포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유정물이니 무정물이니 하는 경계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만물은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상호 의존하며 연기에 따라 잠시 존재할 뿐이다. AI마저도 새로운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의 기저에는 '언어'와 '실재'를 바라보는 두 종교의 서로 다른 시선이 있다.

말씀의 신성함, 이름의 헛됨

기독교 전통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선다. 우주를 존재케 한 신의 첫 번째 행위이자 신성한 정체성이 깃든 존재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됐다는 선언은, 말 속에 이미 영원한 실재와 절대적 가치가 담겨 있음을 뜻한다. 이 세계관 속에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신이 부여한 신성한 본질의 증명이자 화자의 인격 그 자체다.

교황청 문서가 인공지능을 보며 '우상 숭배'를 염려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자의식도 영혼도 없는 기계가 인간처럼 정교한 '말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일 때, 인간이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기술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불교는 언어를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불교는 태생부터 말속에 고정불변의 본질이나 실재가 들어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부정한다. 언어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임시적인 손가락(방편)일 뿐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름을 붙여 부르는 실체 자체 역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선언한다.

이것이 불교 언어관의 핵심인 '가명론(假名論)'이다. 우리가 실재라고 믿는 것들은 사실 인간이 언어와 개념의 그물로 엮어 만든 임시의 가짜 이름, 즉 '가명'에 불과하다. 실재에 딱 들어맞는 이름도 없고, 이름에 딱 들어맞는 실재도 없다.

이 지독할 정도의 언어적 파괴 위에서 불교가 AI를 대하는 독특한 태도가 도출된다.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인식 체계가 조건에 따라 순간순간 직조해 내는 언어나, 0과 1의 알고리즘이 확률적으로 쏟아내는 생성형 AI의 문장이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애초에 인간의 말 자체가 본래 공(空)하고 불완전한 방편인데, 기계가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있을까.

AI를 뗏목 삼다

불교의 이런 언어관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선종의 '불립문자(不立文字)'다. 문자(언어)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 모토 때문에 흔히 불교를 언어를 거부하는 침묵의 종교로만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방대한 어록을 남긴 이들이 선사들이다. 그들은 말을 지우려 한 것이 아니라 말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했다가 곧바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받아치는 선문답은, 말을 유연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말이 가진 실체성을 부수며 언어의 그물에 미혹되지 않는 자유를 알려주고자 함일 것이다.

조계사 마당의 'AI 로봇 스님'은 바로 이런 불교적 언어관의 자유로움이 기술 문명과 만난 현장이 아닐까. 말과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가 기본이기에, 불교는 AI가 쏟아내는 유창한 법문을 우상화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인간보다 해박한 경전 지식으로 각기 다른 번뇌에 빠진 대중에게 맞춤형 법문을 찾아주는 유용한 '뗏목'이 될 수 있다면 이 새로운 법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날 이후 나를 고민하게 했던 질문에 지금에서야 나름의 답을 띄워 보낸다. "불교가 AI에 이토록 개방적인 건, 말속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성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불성을 깨어나게 흔들어 깨울 수만 있다면 그 언어가 인간의 육성이든 AI의 기계음이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둘 다 강을 건너면 버려야 할 뗏목일 뿐이지요. 교수님의 질문에 작은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